

서울시 구인·구직 및 취업 실태와 특성

조달호 연구위원 · dhcho@sdi.re.kr

이춘화 연구원 · lch128@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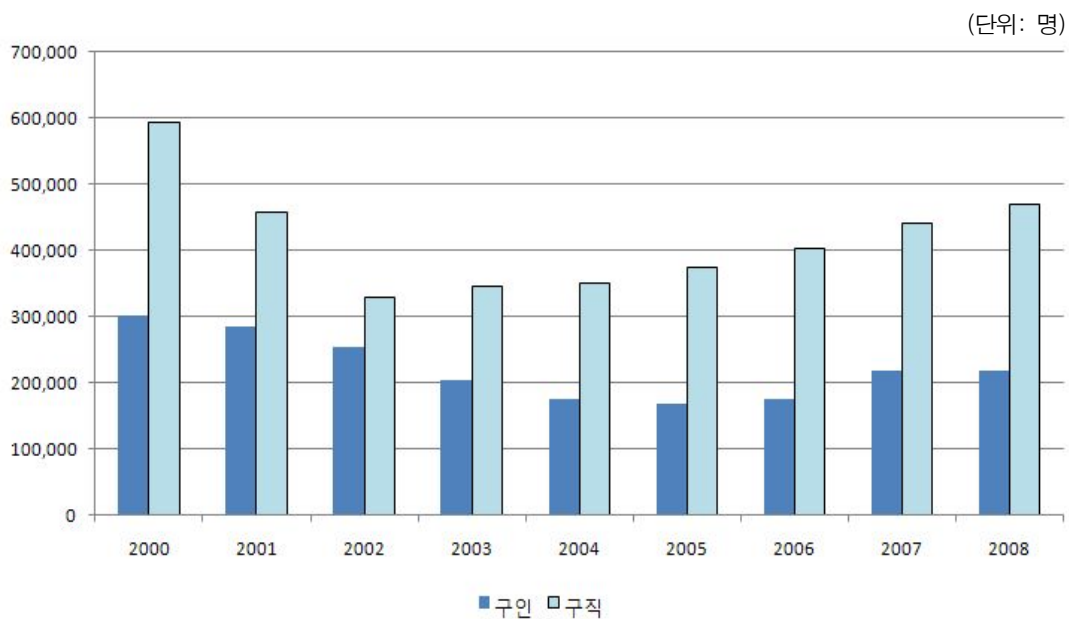
- 생생리포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 발표한 「2008 워크넷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구인·구직 통계의 목적은 공공고용안정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구직자, 구인업체, 취업실적 등에 관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인력수급 상황보고, 노동시장 연구를 위한 통계인프라 축적 등 국가 고용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구인·구직 통계의 대상자는 워크넷(Work-Net)에 구인 및 구직을 신청한 구인업체 및 구직자로서, 매월 1일과 말일 기간에 등록이 마감된 자를 기준으로 함
-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함으로 통계자료가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관련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I. 서울은 전국보다 취업경쟁이 치열하지만 취업성공률은 높음

○ 서울의 구인·구직자 수 연도별 추이는 완만한 U 자형 곡선

- 서울의 신규 구인인원¹⁾과 구직자수²⁾ 추이는 완만한 U 자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도별 구인인원 수와 구직자수는 거의 비례적으로 변동하고 있음
- 2005년부터는 구인인원 수와 구직자수는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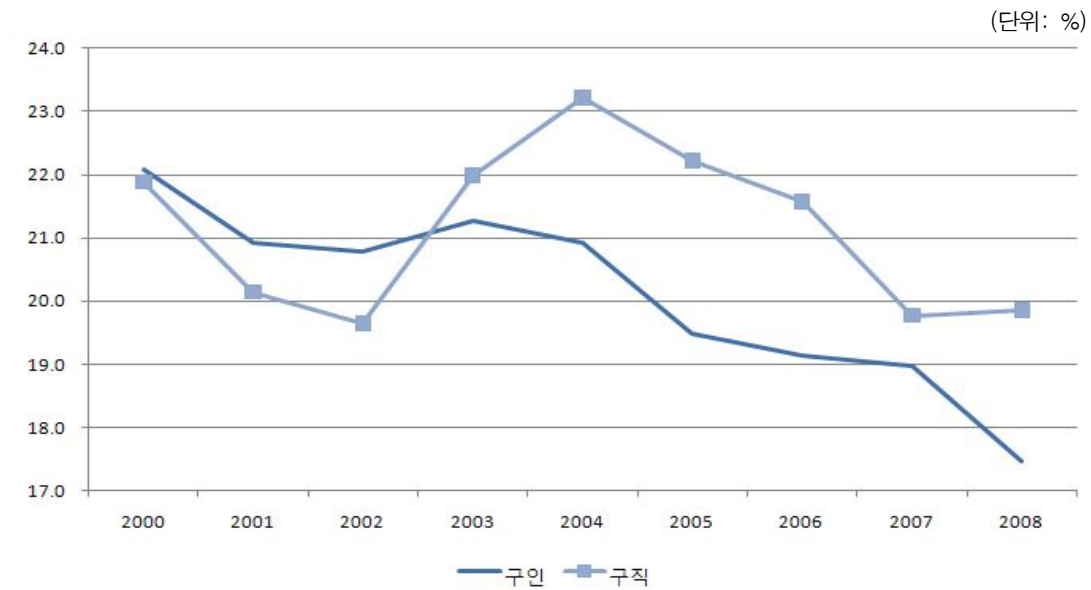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구인·구직자수 추이

○ 서울은 전국 평균에 비해 취업기회가 적음

- 서울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구인인원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서울에서의 일자리가 전국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함. 이는 서울에서의 취업기회가 전국 평균에 비하여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전국대비 구직자수 비중은 2002년 최저수준, 2003년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 최고수준을 나타내었고 2004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1) 신규구직자수: 해당 월에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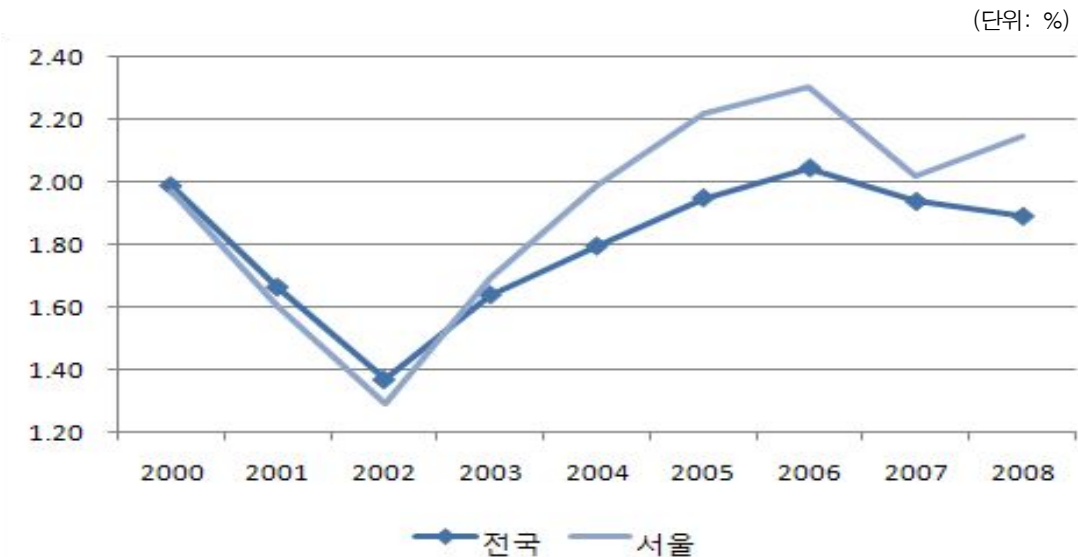
2) 신규구인인원: 해당 월에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인원 수



[그림 2] 서울/전국의 구인구직자수 비중 추이

○ 서울은 전국에 비해 취업경쟁이 치열함

- 취업경쟁률³⁾은 신규구인인원 1명에 대한 신규 구직자 수의 비율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취업경쟁이 치열함을 나타냄



[그림 3] 전국과 서울의 취업경쟁률 추이

3) 취업경쟁률: 신규구직자수 ÷ 신규구인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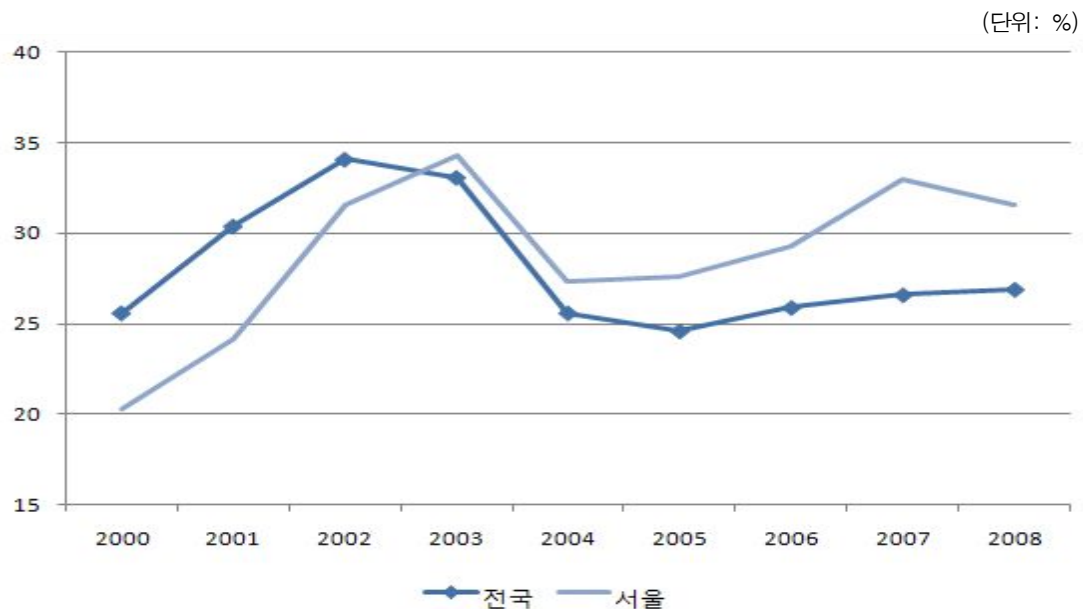
- 취업경쟁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에 전국과 서울 모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2002년에 취업이 가장 용이했고 2006년에 취업 경쟁이 가장 치열했음을 설명함
- 서울을 전국과 비교할 경우, 2003년부터 서울의 취업경쟁률이 전국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서울에서의 취업 경쟁이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열하다는 것을 나타냄

○ 서울에서의 취업 성공률은 전국보다 높음

- 취업률⁴⁾은 취업건수⁵⁾를 신규 구직자수로 나눈 값으로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 수의 비율을 나타냄. 즉, 취업 성공률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취업률의 경우, 2002년까지는 서울이 전국보다 낮았으나, 2003년부터는 역전되어 서울이 전국을 웃돌고 있음. 이는 2003년부터는 서울의 취업 성공률이 전국보다 높음을 의미함

○ 서울은 전국 평균에 비해 취업경쟁은 치열하지만 취업 성공률이 높음

- 서울이 전국 평균에 비해 취업경쟁은 치열하지만 취업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구인 기업이 구직자 중에서 원하는 인재를 서울에서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림 4] 전국과 서울의 취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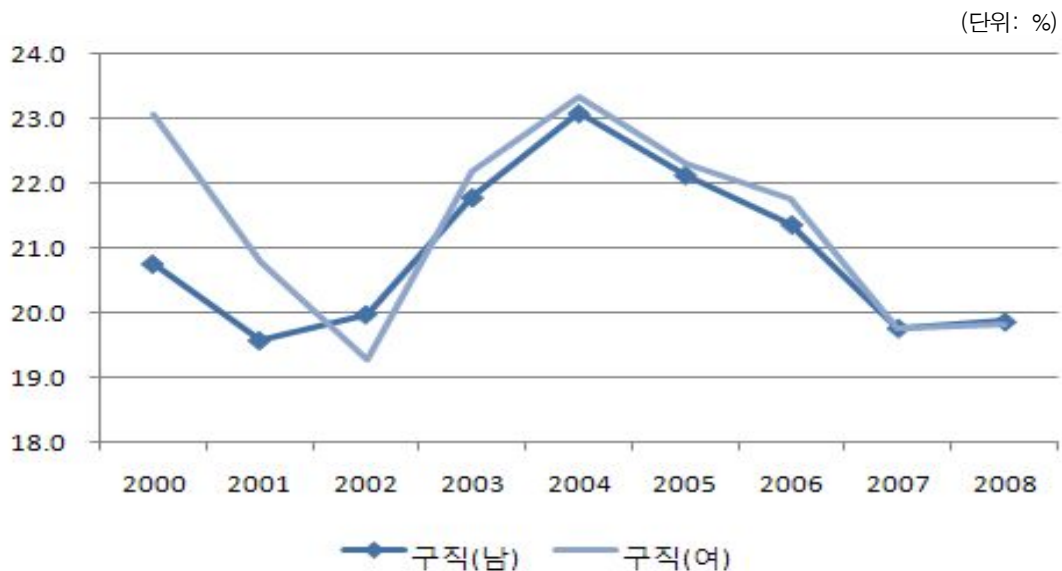
4) 취업률: (취업건수 ÷ 신규구직자 수) × 100

5) 취업건수: 기간 내에 워크넷에 취업 등록된 수

II. 서울에서 여성은 전국 평균보다 취업이 유리

○ 서울의 여성 구직자수 비율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

- 서울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구직자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구직자 수의 수치가 남성 구직자 수의 수치보다 높은 수준(2002년 제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전국과 비교할 경우, 서울에서 여성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려는 즉, 구직을 하려는 비율이 전국보다 높음을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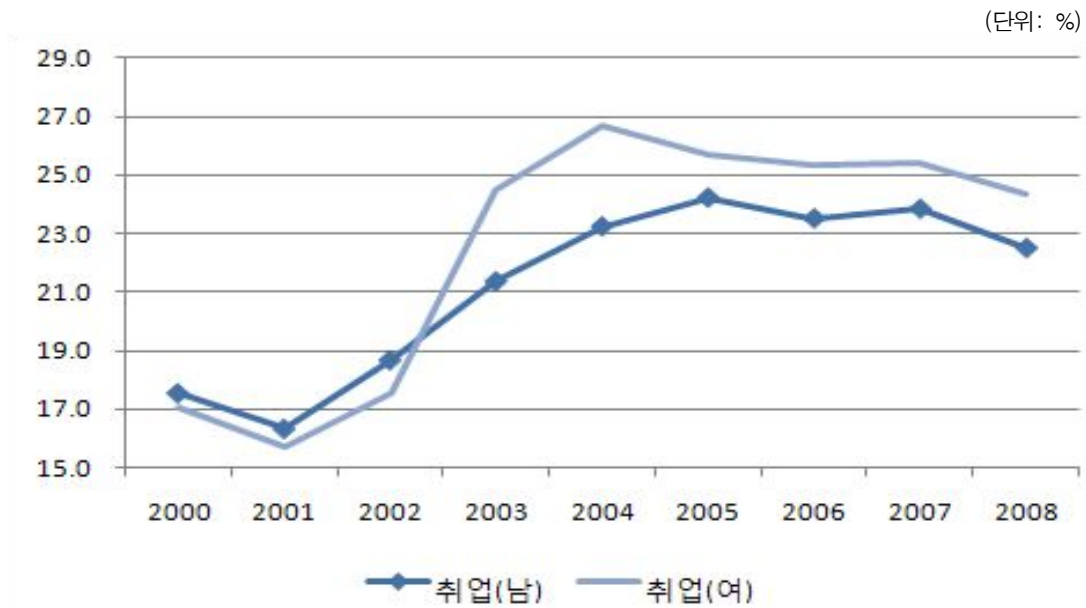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구직자수 비중 추이

○ 서울에서 여성 취업이 전국보다 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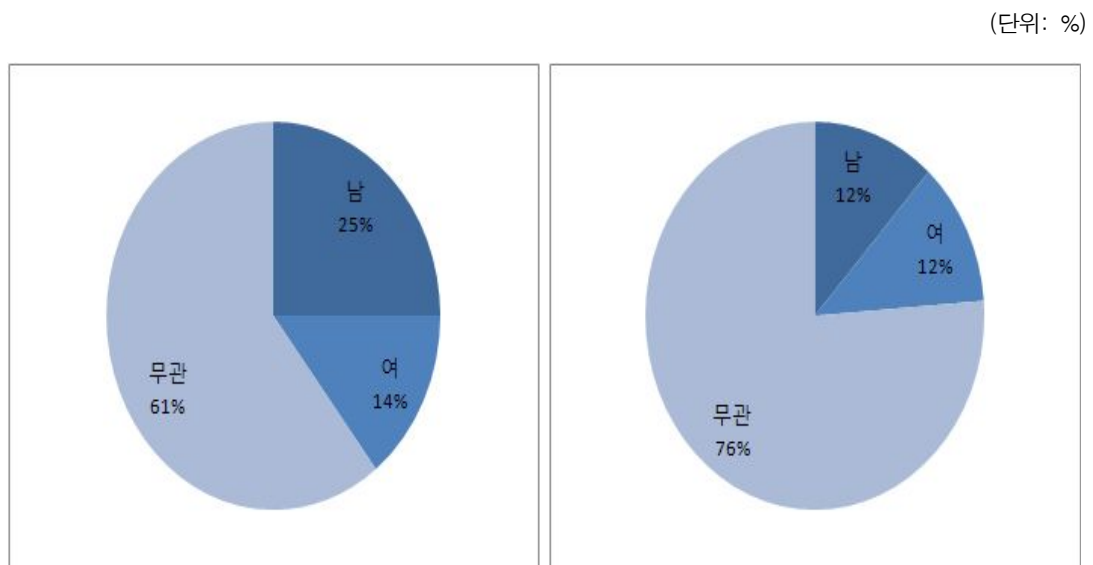
- 서울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취업건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는 여성의 취업건수 비중이 남성의 취업건수 비중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 여성 취업이 전국보다 활발함을 나타냄

○ 남성과 여성 구직자 수 구성은 서울과 전국이 유사

- 구직자 수는 전국과 서울에서 모두 남성이 52.6%, 여성이 47.4%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그림 6] 서울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취업건수 비중 추이



[그림 7] 전국 성별 구분 구인인원 비중

[그림 8] 서울의 성별 구분 구인인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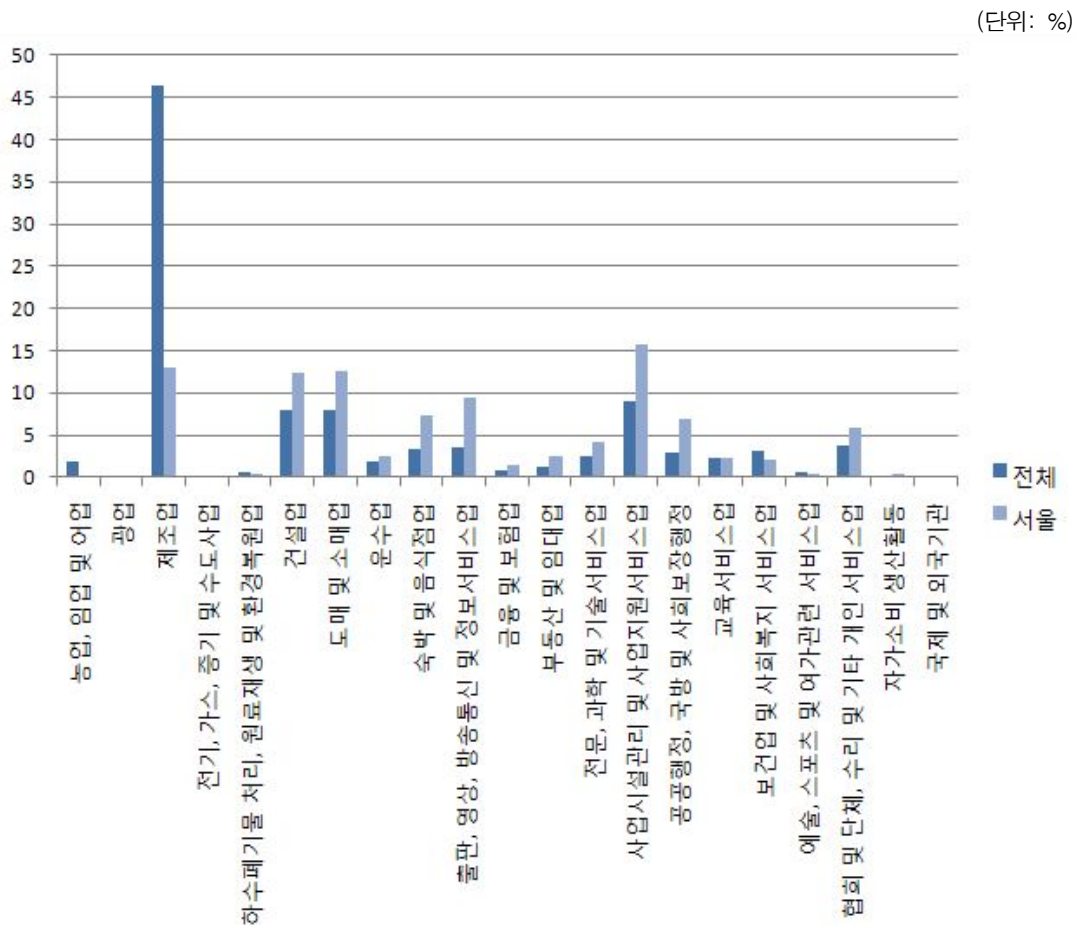
○ 서울에서는 구인 시 남, 여 선호도가 비슷

- 서울의 성별 구분 구인인원수는 남여가 같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서울에서의 남, 여 선호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국의 성별 구분 구인인원수를 살펴보면 남성 구인인원이 25%로서 여성 구인인원(14%)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 구인인원에서 전국의 무관한 비율은 61%에 그쳤고 서울의 무관 비율은 76%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Ⅲ. 음식서비스업 관련 직종의 취업이 가장 용이, 취업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관리직

○ 서울과 전국과의 구인인원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제조업

- 전국과 서울의 산업별 신규구인인원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과 서울의 신규구인인원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제조업임. 전국의 구인인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6.3%로 거의 절반에 가깝지만, 서울은 그 비중이 12.9%에 그침
- 이는 전국의 제조업 비중이 서울보다 훨씬 높은 것 때문으로 분석되며, 서울의 산업은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산업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 업종과 건설업에서는 서울이 전국에 비해 구인인원 비중이 크게 나타났음



[그림 9] 전국과 서울의 산업별 신규구인인원 분포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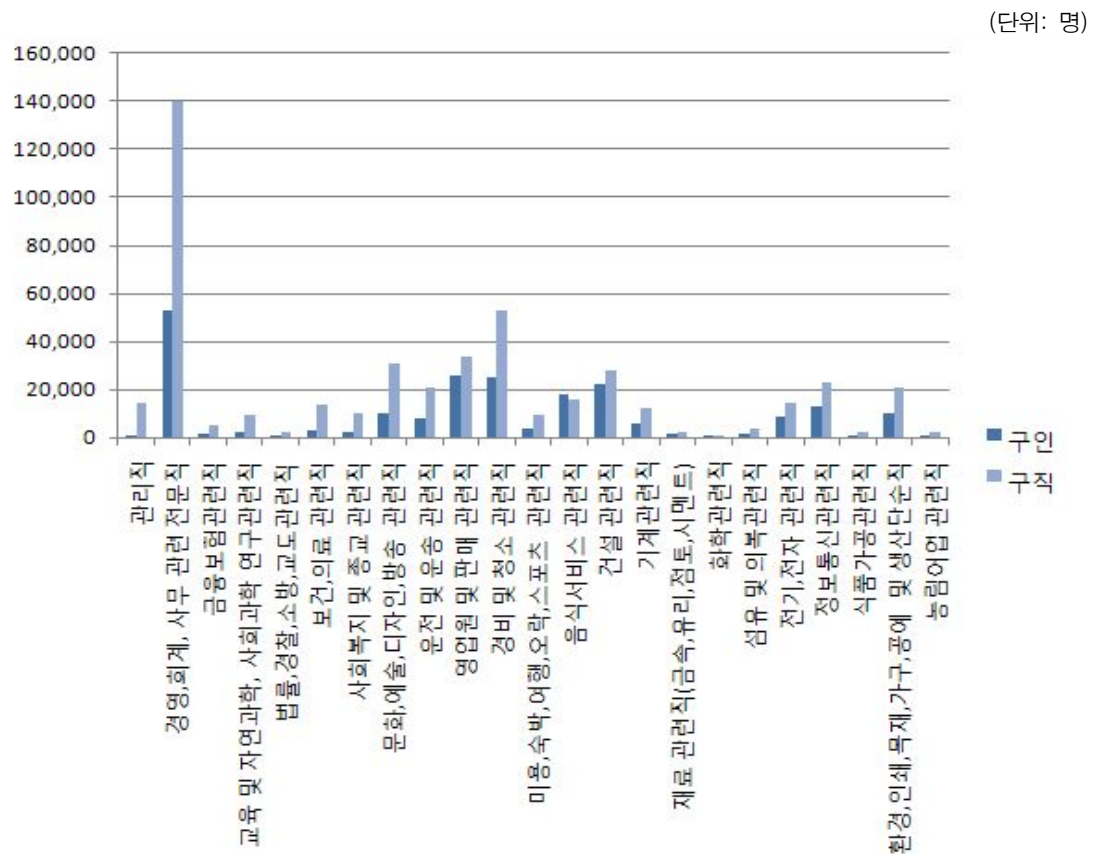
- 구직자수가 구인인원수를 가장 크게 초과하는 직종은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전문직
 - 구직자수가 구인인원수를 가장 크게 초과하는 직종은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전문직으로 꼽혔고, 경비 및 청소 관련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과 영업 및 판매 관련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보건, 의료 관련직 등 직종에서도 구직자수가 구인인원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음식서비스 관련직은 구인인원이 구직자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식서비스 관련직은 사람들이 구직을 기피하는 직종인 것으로 분석됨

○ 취업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관리직으로 나타남

- 관리직의 취업경쟁률은 11.4로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직종으로 나타났고,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7.8), 농림어업 관련직(6.0),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4.5) 등 순으로 취업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경쟁률이 높은 이런 직종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직업으로 분석됨

○ 취업경쟁률이 가장 낮은 직종은 음식서비스 관련직으로 취업이 가장 용이

- 음식서비스 관련직은 취업경쟁률이 0.9로 나타나 취업이 가장 용이함을 의미하고, 다음은 건설 관련직(1.3), 영업원 및 판매 관련직(1.3), 화학 관련직(1.5) 등 순으로 나타남
- 취업경쟁률이 낮은 이들 직종들은 일반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3D 직종에 속하므로 구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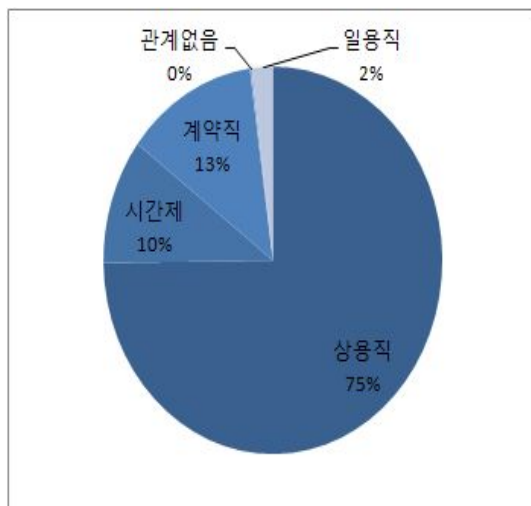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지역 직종별 구인·구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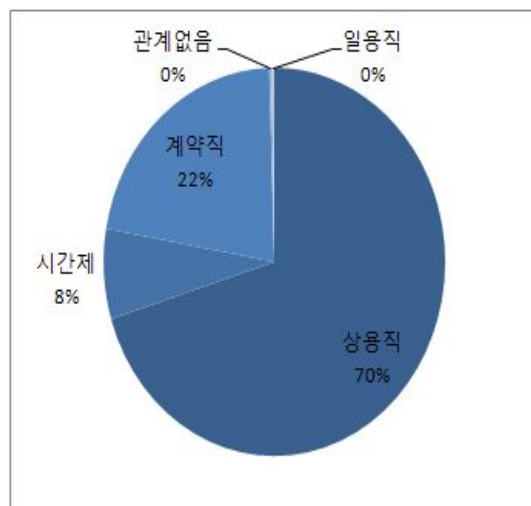
Ⅳ. 서울에서 구인·구직간 불균형 전국보다 심각

○ 서울에서 구직자는 상용직을 원하나 구인의 경우에는 계약직을 선호

- 서울에서 고용형태별⁷⁾ 구직자 수와 구인인원 사이에 불균형이 심각함
- 서울의 구직자 중 상용직을 원하는 비중은 87%를 차지하지만 구인의 경우에는 70%에 그쳐 괴리가 크게 나타남. 전국은 구직자 중 상용직을 원하는 비중은 86%로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구인의 경우에는 75%로 서울보다 상용직에 대한 구인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서울의 구직자 중 계약직을 원하는 비중은 겨우 2%에 불과하지만 구인의 경우에는 22%에 달하여 서울에서 구인 시 계약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은 구직자 중 계약직을 원하는 비중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2%이지만 구인의 경우에는 13%로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나타난 구인·구직 간의 불균형은 서울이 전국보다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11] 전국 고용형태별 구인인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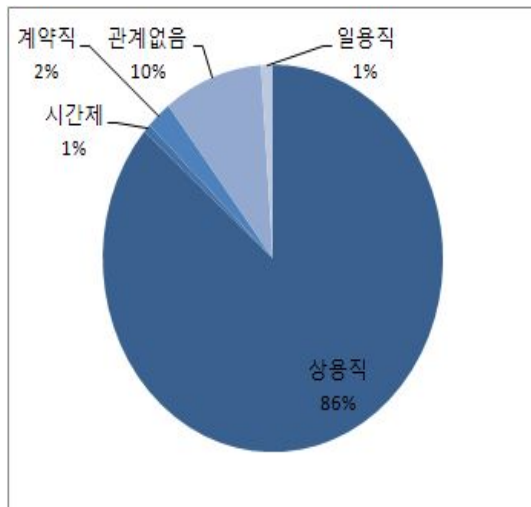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고용형태별 구인인원 비중

7) 상용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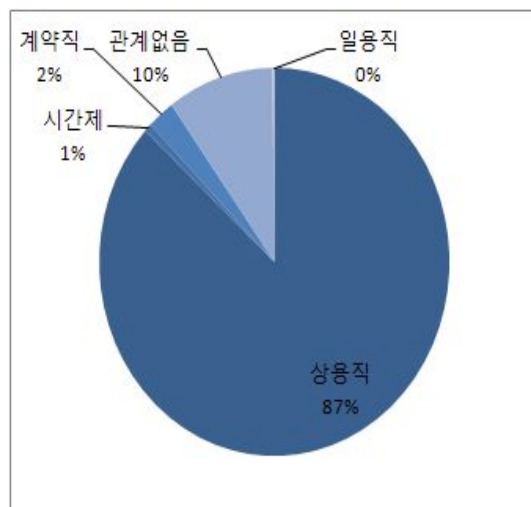
계약직(임시직):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

시간제: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통상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고용.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근로하는 고용



[그림 13] 전국 고용형태별 구직자수 비중



[그림 14] 서울의 고용형태별 구직자수 비중

V. 서울에서는 20대 선호, 전국에서는 30대 선호

○ 서울은 20대 선호, 전국은 30대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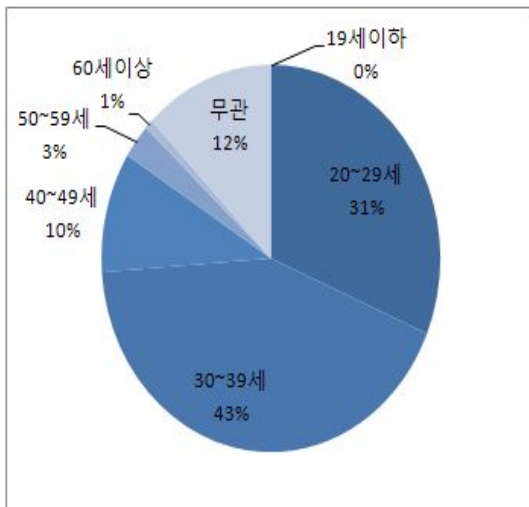
- 서울과 전국의 연령별 구직자수는 비교적 고른 비중의 분포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연령별 구인인원수와 구직자수의 차이는 현저하게 나타남
- 구인의 경우, 서울에서는 30대보다 20대를 더 선호하는 반면, 전국에서는 30대를 20대보다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30대가 20대보다 경험이 많은 숙련자로 가정할 경우, 서비스산업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서울에서는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30대보다 경험과 숙련도를 크게 필요치 않는 20대를 선호하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전국에서는 사회에 갓 진출한 20대보다는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30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고령 구직자 수는 구인인원 수를 크게 초과하여 노인 일자리 부족이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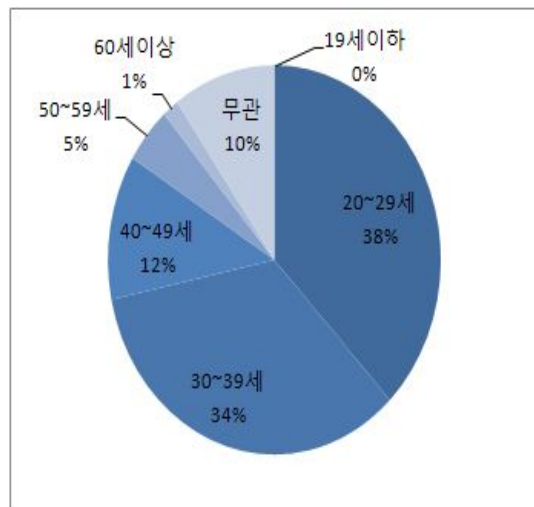
- 서울의 경우에는 20~29세 연령대의 구직자수는 29%인 반면, 구인인원수는 38%를 차지함. 전국의 경우, 30~39세 연령대의 구직자수는 27%인 반면에 구인인원은 43%를 차지함
- 40세~ 49세 연령대의 구직인원은 전국과 서울이 각각 19%, 16%인 반면 구인인원은 10%, 12%로 나타나 구인과 구직의 괴리가 존재함을 나타냄. 50세~59세의 구직자수는

전국과 서울이 각각 16%인 반면, 구인인원수는 전국과 서울이 각각 3%, 5%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연령대의 구직자 수가 구인인원수를 훨씬 크게 웃도는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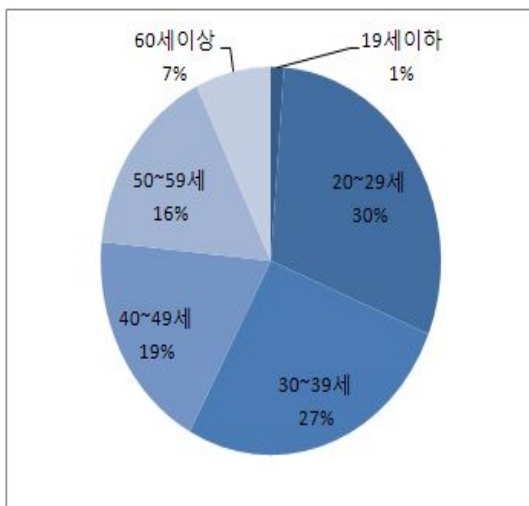
- 또한 60세 이상의 구직자수도 전국과 서울이 각각 7%, 9%를 차지하지만 구인인원수는 각각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들의 구직 수요에 비해 구인 수요는 크게 부족함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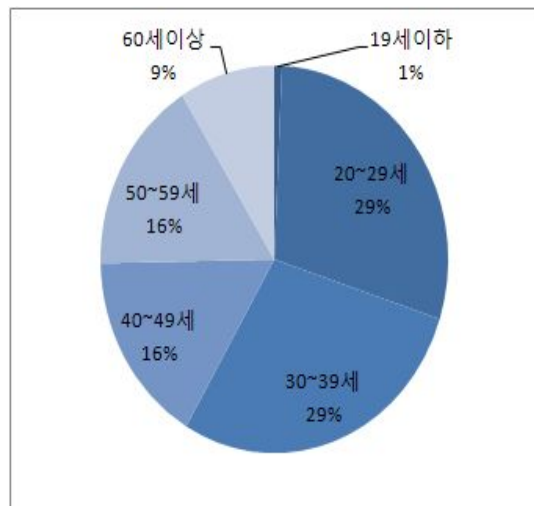
[그림 15] 전국 연령별 구인인원 비중



[그림 16] 서울의 연령별 구인인원 비중



[그림 17] 전국의 연령별 구직자수 비중



[그림 18] 서울의 연령별 구직자수 비중

VI. 종합 및 결론

○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산업의 구조 특성이 구인·구직 및 취업 등에 나타나는 일부 특성들을 규정한다고 판단됨

- 서울에서는 취업기회가 전국의 평균에 비해 적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이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보이용의 접근성이 서울이 전국에 비해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서울에서의 여성 구직과 취업이 전국에서보다 활발하고 또한 유리함
- 취업경쟁률이 높고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직종은 관리직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농림어업 관련직, 교육 및 자연과학 연구 관련직 등도 취업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선호하는 직종들로 분석되었고, 음식 서비스업 관련 직종의 취업이 가장 용이하고 다음은 건설 관련직, 영업원 및 판매 관련직, 화학 관련 직 등 순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위험한 3D 업종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국은 산업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크고, 서울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큼. 이러한 산업 구조적 특성에 의해서 구인 시 전국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30대를 선호하고, 서울은 숙련도가 높지 않아도 되는 20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에서 구직자들은 상용직을 원하나 구인 기업들은 계약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형태별로 볼 경우, 서울의 구인·구직 간의 불균형이 전국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고령 구직자 수는 구인인원을 크게 초과하여 구직에 비해 구인 수요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